통도사, 개산 1376주년 영축문화축제 연다

통도사 경내 일원서 9월 18일~10월 17일

개산조 자장율사의 정신 기리고 통도사의 가치 · 역사 공유의 장 영축삼보이운 · 영축문화공연 등 불교전통의례와 문화축제 마당 "코로나로 지친 대중 힐링 기원"



영축총림 통도사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산 1376주년을 기념하는 '영축문화축제 개산대재'를 경내 일원에서 연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영축문화축제 영축삼보이운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산 1376주년을 기념하는 '영축문화축제 개산대재'를 경내 일원에서 연다.

영축문화축제는 개산조 자장율사를 기리는 불교전통의례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축제로 매년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올해는 '나눔과 참여의 장', '역사와 문화의 장', '문화행사 및 전시'로 나눠 행사를 기획하고 다채로운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

'나눔과 참여의 장'은 일반인들이 직접 불교 전통의례를 관람할 수 있는 △영축삼보 이운 △괘불헌공 △영축문화공연 △괘불 특별전으로 진행된다. 영축삼보 이운은 괘불을 옮기는 행렬 의식으로 각종 번(幡), 기(旗)로 장엄한 전통의식이다. 이운행렬은 부도원에서 설법전 앞 괘불대까지 이어지며, 올해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이 1년에 걸쳐 불사한 '석가여래괘불탱화'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운 후 괘불에 공양을 올리는 괘불헌공이 스님들의 바라춤과 더불어 진행된다. 영축삼보 이운과 괘불헌공은 10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다. 영축문화공연은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문화공연이며 10월 3일 오후 2시 육화당 건너편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괘불특별전은 10월 9일 오후 1시 성보박물관에서 개막하며 상설전시로 이어진다.

'역사와 문화의 장'은 개산조 자장율사를 기리고 역대 고승의 덕을 기리는 전통의식으로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 △부도헌다례 △가사배견으로 진행된다.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에서 봉행되며 부도헌다례는 10월 14일 오후 2시 부도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부도헌다례는 스님들과 선다회 소속 회원 뿐 아니라 통도사에 종사하는 사부대중이 함께 동참할 계획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장율사의 가사를 직접 친견하는 가사배견은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성보박물관에서 진행된다.

'문화행사 및 전시'는 △통도사 문화재 알기 체험 △국화장엄 △특별전시로 진행된다. 통도사 문화재 알기 체험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불이문과 일주문 앞에서 진행된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행사로 컬러링과 퍼즐맞추기를 통해 통도사의 문화재를 알린다. 국화장엄은 9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량일대에서 진행되며 9월 1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시는 통도사를 주제로 찍은 사진전 '나도 작가다'가 감로당 앞에서 열리며, 통도사보 〈통도〉 표지 및 컬러링이 성보박물관 외부 일원에서 전시된다. 아울러 지역 작가들의 도자기, 연꽃사진, 서각도 8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명월료에서 전시된다.

통도사는 이번 영축문화축제를 '코로나 시대에 선사하는 치유와 안전'이란 메시지를 담아 기획했다. 통도사는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 모두가 안전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산사와 불교가 전하는 문화축제로 지친 시민들과 사부대중이 힐링을 얻기를 바란다"며 "다채로운 행사로 개산조 자장율사의 정신과 통도사의 가치 및 역사를 공유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2021년 하반기 입학식

신입생 50명 입학, 총 200여 명 등록



부산불교교육대학이 9월 6일 대학 내 강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입학식을 진행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9월 6일 대학 내 강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입학식 및 신규탁 교수의 벽암록 특강'을 진행했다.

입학식은 △개회사 △삼귀의 및 반야심경 △선서 △환영사 △발원문 △사홍서원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 소속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은 총 50명이며 기초교리학과, 불교엘리트 과정 등 정규과정을 비롯해 불교문화학과, 신규탁 교수의 유튜브 강의 등 개설 강좌에 신입생과 150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라는 기치를 펼치며 불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해왔다"며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명실상부 불도 부산의 산실 역할을 해온 역사를 담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부산불교교육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주역들이다"고 환영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불교대학으로, 도심포교에 앞장선 불교대학의 대표 주자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캠페인과 '남북평화통일기원 3보1배', '소외계층 위한 연탄나누기' 등 사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개교 이후 졸업생 1만5000여 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1200여 명, 승려 100여 명을 배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환경연대, 녹색 아카데미 회향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가 9월 4일 울산 백련사에서 '녹색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수료증 수여와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울산불교환경연대는 24명의 활동가를 배출했다.

수료식에서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교육을 통해 의식을 바꿔야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닌 만물의 일원이다.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환경활동가 양성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코로나 극복기원 '추석맞이 자비나눔'

동림선원 · 혜원정사 등 소외 이웃 후원 전달식 개최



부산 경남에 위치한 사찰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 극복 기원과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동림선원이 9월 7일 개최한 '자비나눔 기부금 전달식' 모습.

부산 경남 지역 사찰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극복 기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은 9월 7일 선원 내 3층 대법당에서 '자비나눔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동림선원은 전달식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과 백미 20kg 50포대, 총 1000kg을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주지 신공 스님, 정서율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문미영 복지팀장, 이정희 보건복지팀장 외 신도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동림선원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통도사 자비원과 김해서부소방서(장유119안전센터)에 추석 명절맞이 떡과 수건, 치약, 비누 등을 담은 세면용품을 전달했다.

동림선원은 "2018년부터 매년 후원을 이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9월 6일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제구 이웃돕기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혜원정사는 전달식에서 연제구청에 백미 10kg 180포, 총 1800kg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주지 원허 스님과 이성문 연제구청장, 전현수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주지 원허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이 위로를 얻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렵지만 한가위 추석을 맞아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탁한 백미는 연제구청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래구불교聯, 저소득가정 장학금 전달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는 9월 6일 동래구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연합회 십시일반, 장학금 500만 원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용하)는 9월 6일 동래구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는 지역 저소득가정의 아동 · 청소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 500만 원을 동래구청에 기탁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회장 용하 스님, 前 회장 자관 스님, 용수 달마사 해운 스님, 김우룡 동래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장 용하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어려워 지원 시기가 늦어졌다"며 "장학금은 前 회장이신 자관 스님을 비롯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우룡 동래구청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해마다 성품과 성금으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동래구 불교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이 힘든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KBS '6시 내고향' TV방영

